

電氣逋信公社와 데이타逋信会社 設立

- 国内外 逋信 시스템 電子化 確立 -

□ 電氣逋信公社의 設立

金玩熙 會長：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盛況을 이루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國事多忙하신 逋信部長官께서 틈을 내시어 저희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해 주신 것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임은 電子工業振興會와 大韓電子工學會 특히 產學協同委員會가 합동으로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長官을 비롯하여 逋信部에서 여러분이 나와 주셨고 商工部, 學會 등에서도 여러분이 나와 주셨습니다. 電子工學會 副會長이신 朴松培 博士, 또 副會長이신 盧弘晁 博士가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애석한 일은 오늘의 자리를 위해서 같이 일해 주시던 電子工學會의 朴麒洙 會長께서 不意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게 되신 것을 매우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長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리라 믿는데, 時間이 허락하는 한 여러분의 質問에 답변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5次 5個年 計劃이 마무

리되어 가고 있으며 아울러 電氣逋信公社의 創設이 추진되고 있어 우리 業界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長官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 것이 꼭 유익하리라 믿습니다.

崔侑洙 長官：逋信部長官 崔侑洙입니다. 오늘 韓國電子工業振興會와 電子工學會 주최로 국내 逋信産業 업체 代表 여러분이 많이 모이신 가운데 가지는 電子工業 產學協同懇談會에 참석해서 제가 所管하고 있는 逋信業務 중 우리나라 逋信産業의 現況과 그 展望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진심으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간 제약이 있어서,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몇 가지 問題點과 또 이에 대처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方向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난 3月初에 부임한 이후 저는 職員들에게 늘 周知시키기를, 逋信部가 일대 轉換期를 맞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세 가지 면에서 중요한 歧路에서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本會는 大韓電子工學會와 공동 主催로 지난 10月 29日 貿易會館 22층 貿易俱樂部에서 逋信部長官 招請 懇談會를 개최하였다. 이날의 懇談會는, 우리나라의 電子工業과 逋信産業의 당면 課題와 計劃을 중심으로 產學協同의 견지에서 상호 理解 촉진을 기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崔侑洙 逋信部長官을 招請, 5次 5個年 計劃 중의 逋信 부문과 官需用 逋信機器 需給計劃 등에 관한 說明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逋信部, 商工部 관계자들과 電子工學會, 研究所, 逋信業界 代表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盛況을 이루었다. 同說明 중에는 상세한 計劃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관련 業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어 本誌에 全載한다. - (編輯者 註) -

첫째는 機構面에서 중요한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通信事業이 企業性을 모토로 하고 또 經營 合理化 그리고 能率化를 기해서 궁극적으로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다 良質의 서서비스를 需要에 맞추어 適期에 공급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구상하에서 通信部 事業의 중요 부분이던 電氣通信事業을 82年 1月 1日을 기해서 電氣通信公社로 발족시키고 이에 移管시킨다는 큰 方針이 결정된 것입니다.

□ 公社 予算 1兆 7,450億원

또 하나 큰 전환점이 되고 있는 것이 이 事業의 규모와 財政面입니다. 그것은 우선 加入 電話 하나만 보더라도 종래의 연간 10万, 20万이 고작이던 것이 금년이나 내년부터는 거의 100万 回線이 넘는 시설을 해마다 해 나가야 한다는 사업 규모에 있어서 커다란 성장을 이룩하는 始 發點에서 있고, 財政 규모도 매년 25% 전후의 伸張을 보여 왔음니다만, 금년도 通信部의 일년 予算이 1兆 4,620億원인 것에 비하여 82年度에는 電氣通信事業이 분리되어 나가서 公社의 予算만이 1兆 7,450億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대한 財政 규모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또한 중대한 전환인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까만 技術面에 있어서 電子交換 시설이 도입되고, 가설이 되고, 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면에서 技術이 아직 定着되지 못하고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電子交換 시설의 國產化내지는 研究開發의 과제를 안고 있다는 면에서도 커다란 전환점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가 중요한 시련과 전환기를 맞이한 때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면을 중심으로 해서, 또 5次 5個年 計劃의 테두리 안에서 몇 가지 중점적으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우선 機構面에서 電氣通信公社는 82년 1월 1



일부터 발족시킬 계획하에 모든 작업을 추진해 나가고 이제 人員의 분리라든가 財産의 분리라든가 혹은 편제라든가 기타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처럼 큰 조직을 새로 설립시킴에 있어서 저는 몇 가지 원칙하에 임해 왔습니다.

첫째는, 電氣通信事業이 하루한시도 중단이나 공백이 있을 수 없다는 관점에서 어디까지나 안정적인 基盤에서 일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機能, 人員, 財政을 분리했고 또 금년도 事業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82년도의 사업에 대비한 금년도의 준비를 끝마쳐서, 1월 1일부터는 오히려 정비정돈된 상태에서 업무를 개시할 수 있게 진행시켜 왔습니다.

또 하나, 財政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狀況下에서 公社를 설립하는 만큼 公社 설립으로 인한 분할 수는 최대한으로 극소화 시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임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 政府 조직에 있어서도 大局大課主義에 입각한 簡素化에 맞추어 機構 역시 최대한 간소화한다는 방침으로 준비를 시켜 왔습니다.

이번 公社의 발족이 앞으로 電氣通信事業에 발전적 기반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우선 中長期 計劃의 방향을 이 기회에 명백히 제시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中長期 마스터 플랜 작성을 위한 電氣通信網의 기초 조사와 投資 우선 순위를 책정해서 그 原則을 電氣通信公社에 이관시켜 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5次 5個年 計劃의 세부 계획은 年末가

지 작성해서 公社와 관계되는 부문은 이관시켜서 업무의 착오를 방지할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綜合的인 經營 合理化, 그리고 能率化의 방향에 대해서도 그간 韓國電氣通信研究所, KAIST 등에 전반적인 연구를 위촉, 그 결과를 단계적으로 접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財務 구조와 財政 운영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적절한 歲入의 책정, 필요한 投資財源의 확보 방안, 投資 우선순위의 합리적인 책정 등을 준비해 왔습니다.

현재로서는 1월 1일에 中央郵通局 내에 公社를 수용할 생각하에 資本金을 法에 의해서 2兆 5,000億원, 인원은 현재 通信部 인원 11만 9,200명 중에서 3만 5,400명을 公社로 옮길 계획입니다. 官署는 通信部 전체가 2,288개인데 이 중에 電話電信局을 중심으로 해서 165개소를 公社로 이관시킬 생각입니다.

社長을 비롯한 公社 幹部陣의 人選도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어서 11월 중에는 우선 登記를 하고 공식으로 준비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 通信部의 기구에 상당한 변동이 필연적일 것 같습니다. 그간 政府와 협의해서 기구 조정을 했는데, 公社의 설립 관계로 해서 12월 31일을 기해 개편할 계획이며, 그때까지는 일부 公社에 나가 일할 사람은 겸직발령을 해서 업무에 차질을 방지하는 동시에 公社의 준비도 진행시켜 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려 하고 있습니다.

□ 通信 분야의 기본 目標

다음에 事業과 財政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5次 5個年 計劃 중 通信 분야의 기본 目標을 말씀드리면, 첫째 國民生活와 직결된 電話의 대량 供給과 品質向上을 目標로 삼고 있습니다.

81년말로 우리가 보유하게 되는 市内 가입 電話回線은 371만 2,000이 됩니다. 여기에 82년

도부터 시작해서 5次 5個年 計劃 중에 628만 回線을 추가로 시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長距離電話는 현재의 10만 回線을 33만 3,000回線, 그리고 國際回線은 1,400回線을 2,400回線으로 늘일 計劃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전체 需要의 97% 정도는 충족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電話積滯는 86年度에는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째, 다음으로는 施設의 現代化가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數値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加入電話 交換施設은 현재 88% 自動化되어 있는데 이것을 86年度까지 98% 수준까지 올리고, 또 電子化는 14%가 되어 있는데 이를 62% 수준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長距離電話는 交換施設이 73% 自動化 되어 있는 것을 96%까지, 그리고 電子化는 아직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94%까지 제고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에 電送物도 市内局간은 현재 34%에서 52%로 Digital化 하고 長距離는 19%에서 64%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기본 目標을 세우고 또 달성을 위해서는 5次 5個年 計劃 중에 固定資產에 대한 投資費도 5兆 4,000億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80年度 不變價 기준) 이것은 전체 投資費의 3%에 해당되며, 4次 5個年 計劃 중의 비율에 비교해 보면 4.5%가 됩니다. 여기에 建物, 垜地까지 포함하면 전체로 6兆 1,000億원이 5次 5個年 計劃 중에 通信 분야에 投資될 것입니다.

이것을 大別해 보면, 加入電話-부문에 交換과 線路에 있어서 전체의 70%, 長距離-부문에 20%, 電信國際-부문에 10%를 充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82년도에 있어서 公社가 당면할 가장 중요한 問題 중의 하나가 財政財源 문제입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었습니다만 82년도에 公社의 支出予算을 현재 1兆 7,448億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經常面, 즉 損益計定面에서는 계속 当期純利益을 내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거의 100

万回線이 넘는市内加入電話를 위시해서 지금 말씀드린 5次 5個年計劃의 테두리 안에서, 확정된事業에 대한投資를 하려면 당장資金이 소요되기 때문에 82년도에借款 도입 등 외부자금을 상당히 들여와도 3,000億원이 넘는財源의 부족이 생기고赤字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82년도에는公社 발족 직후에 약 2,000億원 정도의社債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그 외의 상당 부문도長期 또는短期借入 등 외부자금으로 충당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일시借入限度 2,000億원

금년 중에業界 여러분께納品을 받고도適期에精算해 드리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에 1,000億원이 넘는 선까지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만 금년 予算에 通信部가 일시적으로 차입할 수 있는限度額은 200億원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차입 한도 내에서 계속 차입을 해 왔어도 역시 상당한 정도의未拂金이 발생했던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未拂金으로 인한 폐를業界에 끼치지 않기 위해서 금년追更에, 200億원으로 되어 있는一時借入金의 한도액을 1,000億원으로增額하는案을 내놓고 있고, 82년도公社에서는 일시借入金의 한도액을 2,000億원으로引上해서 연도 중에資金의需給에 의한未拂金이 발생하지 않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국내외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이 같은 通信部の 곤란한資金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여러 면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業界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技術 부문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電子交換施設이 도입되어서永東과堂山간에 각각 1万回線씩 2万回線이 개통되어 있는데, 그 이후 금년에 들어와 2万回線, 3万回線씩 각電話局에서 개통되고 있습니다. 그간永東과堂山の 개통 이래 운영면과 기술면에서 많은 어려움에 당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금년 봄부터 通信部和 韓國電氣通信研究所, 또 도입선인 外國會社 그리고 국내生産業체 이렇게四位一體가 되어서維持補修運營센터를 구성해서 필요한人員을 확보하고 또 그 안에機動運營班을 구성해서 문제가 있는 곳에 즉각 출동해서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처를 하는體制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아직技術面에서 취약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면은公社가 발족되면가급적 널리高級人力을 널리 구해서電氣通信研究所 등과 협조를 해서 차차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내産業界의技術能力이 점차 향상되어 나가는 점에 비추어 일부 ESS, 또 현존하는機械式交換施設의委託 또는請負에 대해서民間業체나技術用役業체가維持補修를 할 수 있는 체제로 발전시켜 나갈方針을 세우고 있습니다.

□ 電子交換機의機種 선정

다음에技術面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앞으로 계속 도입할電子交換機의機種 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通信部和 研究所가 다각적으로調査研究를 해왔습니다만, 저로서는 여기에 세 가지原則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새로 도입하는施設이現存 시설과의 조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또維持補修의 문제가 없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매우 어려운財政 상태에서 방대한資金을 들여資材를 도입하는 만큼 최선의 노력과 교섭을 통해서 가장經濟的이며 필요로 하는 서어비스를, 그리고機能을 발휘할 수 있는機種이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종래 通信部가 가지고 있던方針이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차적으로 通信部の需要가 충족될 것 같으면, 그 다음은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는 안이한 자세가 일부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政府로서는 방대한電子交換施設의 도

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기회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外國의 技術을 도입하고 傳受받아서 우리나라의 産業 振興, 특히 電子工業, 또 半導體工業의 育成과 振興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겠다는 방침인 것입니다. 通信部로서는 이 같은 政府의 方針에 전격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로서는 새로운 機種의 도입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技術의 傳受가 꼭 必須與件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交換施設의 도입과 관련하여 저희로서는 가급적이면 韓國型의 交換施設을 개발해야 되겠다. 또 그것은 최선의 時分割 方式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輸入의 代替效果를 올리고 또 국내 産業을 育成하고 技術을 축적해서 國際競爭力을 기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달 전에 우리 研究所에 국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팀이 구성되었고, 앞으로 약 200億원의 予算을 투입해서 이 분야의 연구개발을 적극화시켜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電氣데이터通信會社 設立

이번 公社 설립과 관련하여 通信部로서는 電氣데이터通信會社를 발족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次官을 委員長으로 하는 委員會가 구성되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은 회사와 국내 이 방면에 관심과 실적을 자지고 있는 民間 業체가 合作이 되어서 이와 같은 회사를 設立하는 게 어떤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회사 설립과 함께 국내 데이터通信網에 대한 정비를 해서 이것을 신속 원활하게 情報가 소통될 수 있도록 多重化하고 高速化하는데 집중적인 投資를 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通信會社가 데이터銀行 혹은 데이터 處理 업무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 분야는 民間과 경쟁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民間에서 하기 어

려운, 저희 經濟 發展의 기본이 되거나 혹은 國家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情報의 소통을 일차적으로 데이터通信會社가 맡아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현존하는 데이터銀行의 연결 내지는 統合 그리고 外國의 데이터銀行 등과의 연결 등의 業무를 역시 이 會社가 맡지 않을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會社도 82년 2,3월에 는 발족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民間 業체를 최대한으로 育成하는 데에 주력할 것입니다. 현재 ESS 工事が 상당히 확장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 1機種은 83년부터, 2機種은 84년부터 점차 競爭 체제를 조성해 나가면서 국내 業界의 능력을 부양시키는 데 노력할까 합니다. 그 다음 用役 業체도 設計用役의 확대, 또한 이를 통한 設計 技術의 향상, 나아가서는 海外 進出로 유도하는 데 一助가 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가, 公社로 보아 技術人力의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최대한 노력해 보았음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財政的인 어려움 때문에 새로 발족하는 公社의 報酬 수준을, 公社로 가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만큼 인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高級人力의 확보를 위해서는 그와 같은 人員에 대한 優待 조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배려를 해서 國內外 高級 技術人力이 公社로 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公社 職員의 教育訓練, 研究所 상호간의 협조 등도 더욱더 活性化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저희가 試驗架設을 해서 運營을 해보려고 계획중에 있는 光纖維 부문도 앞으로 力點을 두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말까지 九老와 安養간에 우선 가설해서 試驗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어떠한 방향으로 이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기본 政策을 정할까 합니다.

대체로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말씀드렸음니다만, 끝으로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8년 서울 올림픽에 대비해서 通信部

도 일차 검토를 했읍니다만, 대부분이 5次 5 個年 計劃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부문에 의 投資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市内 가입 電話의 需要가 충족 되고, 長距離 電話도 電子化되는 동시에 대부분 DDD化 되고, 國際電話나 國際通信도 주요 國家와의 自動化는 83년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에 편중되어 있는 國際通話를 분산하고 또 원활히 하기 위해서 83년경까지는 釜山에 第2 管掌局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衛星通信支局도 현재 있는 것에 추가 해서 第4 地區局을 5次 5 個年 計劃 중에 설치할 계획이므로, 말씀드린 데이터通信도 정비가 끝날 것입니다.

각종 電送物의 디지털化도 상당히 진척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올림픽 개최에 따른 투자는 없을 것입니다.

□ 衛星 發射는 研究 검토 필요

최근 일부 新聞에 성급한 報道가 있었읍니다만 人工衛星 발사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通信部 단독으로 결정지을 성질의 것도 아니므로, 앞으로 技術面, 經濟面, 기타 세계 추세 등을 고려해서 상당 기간 연구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합니만, 현재로서는 政府에서 어떠한 方針을 정할 수 없는 입장인 것입니다.

이상, 通信部가 당면하고 있는 問題點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事業에 대해서 여러분께 다소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렸읍니다. 혹 질문이 계시면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朴允緒 專務理事(金星半導體(株)): 長官께서 말씀하신 중에 電子交換機의 新機種 도입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市外인지 아니면 市内인지 조금 보충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崔侑洙 長官: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 交換機는 Signal交換機입니다. 그것이 市内나 市外나 하는 것은, 초기부터 구분해서 추진했읍니다만 아직 결정을 보지 못했읍니다. 어쨌든 用途는 市外의 中用量 부분하고 農漁村이 되겠습니다.

質 問: 日本에서는 Paging System이 실시되고 있는데 우리는 혹시 계획에 없읍니까?

崔侑洙 長官: 내년에는 어느 정도 施設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우선 1万 回線 정도 서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 재균 博士(科學技術院): 여러가지 말씀 중에서 技術人力 확보가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通信部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公社에서 필요한 人力을 어떻게 양성하느냐 하는 것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만, 제 의견으로는 대규모로 人力이 필요하다고 해서 새로이 教育機關을 만든다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現 상태에서 어떻게 쉽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되겠는데, 한가지 평범한 提意를 할까 합니다.

현재 국내 각 大學, 大學院, 專門學校 등의 電子工學科에서 배출되는 人員이 상당히 많읍니다. 그러나 그들이 卒業 후 곧바로 通信部에서 종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각 學校에 새로운 教科課程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어려우니까, 실제적인 方法으로서는 通信部가 필요로 하는 人力을, 通信部가 요구하는 長期的인 계획에 입각한 研究事業을 마련해서 그에 소요되는 研究費를 집중 투자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崔侑洙 長官: 公社 설립 자체가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믿읍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 通信部에서 일하고 싶어도 公務員 採用試驗에 合格되어야 한다는 현실 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았읍

니다만 公社가 설립되면 이 문제는 자연 해결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채용을 하고서도 문제가 되었던 기 때문에, 公社에 이관할 계획으로 있는 大田 教育訓練院 分院에 3週, 2年, 2年 6個月씩 구분해서 教育訓練을 시키고 있으며, 또 일부 職員 중에서는 學費 사정으로 進學하지 못한 사람을 선발해서 學資金을 주어 大學에 修學시키기도 하고, 研究所에 파견한다든가, 또 이번의 ESS 導入에 있어서는 런던, 美國 등 現地訓練을 받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大學 등의 研究課程에 보조를 하고 人力 養成을 피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人員을 가지고 하는 訓練은 한계가 있으므로 採用할 때 才質이 있는 사람을 선발해야 급진적인 成長이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實情입니다. 그 方法은 큰 資金이 소요될 것이 아니므로 公社가 발족되는 대로 연구토록 해보겠습니다.

車有培 社長(金星電氣(株)): 5次 5個年 계획 중의 通信事業에 대한 것을 長官께서 상세히 언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삼스럽게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生産業體의 공통된 생각의 一端을 말씀드리겠습니다.

販賣에는 두 가지 類型이 있어서 各國의 카탈로그만 가지고 오며에 나서는 사람이 있는 반면 生産業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財産을 투입하여 장구한 세월 동안 종사하면서 작은 대로 가지고 있는 技術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保守的인 입장에서 在來의 產品을 계속 구입해 달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가 꼭 보수적인 것만 고집해서 先進國의 좋은 品質의 저렴한 產品을 도입시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변화를 줄 수도 없으므로, 購入하는 입장에서는 企業經營의 合理化를 위해서는 급속한 전환이 그 나름대로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業界를 위해서는 期間을 설정해 주고 그때까지 개발을 해서 生産 供給할 수 있게 이끌어 주셨으면 좋

겠습니다. 다음은, 公社가 발족되면 人事 이동과 계획의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82년 상반기는 과도기적인 진통을 겪게 될 것이므로 상반기에 필요로 하는 것은 미리 業體에 注文을 하여 대비토록 해주시고, 計酬生産의 기틀을 확립할 수 있게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崔侏洙 長官: 직접 生産하는 입장에서는 역시 가격이 다소 비싸고 品質이 못하더라도 국내 產品을 구입해야 될게 아니냐고 생각하시겠지만, 政府 역시 기본 政策만은 그렇게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래의 방식대로 生産 納品해야겠다는 생각 속에 집착하고 있다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 計酬生産 및 轉換을 위한 기간의 여유와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며, 이미 그런 事例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業界는 스스로 世界 市場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研究開發을 하면서 준비를 해 나가는 자세를 취해 주셔야만 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計酬生産인데, 지금까지는 政府 予算이 상당히 경직된 것이어서 책임있게 計酬生産을 위한 指標나 方向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公社가 출범하게 되면 상당히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人事 이동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달라진 소속과 직책 때문에 얼마간은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意思나 能力에 맞게 人事 조치를 취할 계획이지만, 저희가 판단해서 公社의 안정적인 移管과 출발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에는 과감한 조치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내년도 상반기에 할 事業의 변화를 막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의 각종 工事は 금년 안으로 완전히 設計를 끝내고 필요로 하는 資材 또한 금년 안으로 發注를 끝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여건하에서 公社 발족을 서두르고 있으므로 業界 여러분의 지원과 협조가 그 언제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金玩熙 會長님, 그리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